

# 광주 사학들 '교사 위탁·공동채용' 거부

### 사학법인협의회 총회 "최종 면접 시교육청 추천 인사 참여 안돼" 필기·실기전형 권고안은 수용... "특성 달라 일괄 수용 어려워"

광주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사립학교 교사 위탁·공동채용' 안 수용을 거부했다.

개별 사학법인이 시교육청의 교사 공동 채용 방안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전체 사학법인이 일괄적으로 시교육청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사학법인이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광주시 일부 사학에서 교사채용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받는 비리가 되풀이되자 지난 2015년부터 희망 사학을 접수받아 공동채용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범위를 넓혀 개별 사학이 아닌 사학법인협의회와 협의를 벌여 전체 사학

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왔다. 광주에는 35개 사학법인이 있다.

하지만 광주사학법인협의회는 10일 광주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사공동채용 방안을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사학법인협의회는 사립교사 공동 채용 방안에 대해 시교육청과 수개월 전부터 협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학법인협의회와 시교육청은 1차 필기전형, 2차 실기전형에는 뜻을 모았다.

담당교과 필기시험 문제는 시교육청이 출제하고 2차 실기전형(수업시연)은 사학법인 측이 주관하되 시교육청 파견 평가위원 1명이 참여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인 것이다.

합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학법인 입장

에서는 공립교사 채용시험보다 1주일 앞선 11월 17일 사립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진행해 우수 교원 확보를 도울 수 있고, 법인별 자체 선발에 따른 재정부담 및 행정 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3차(최종) 면접전형에는 사학법인협의회와 시교육청이 그동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3차 전형 역시 사학법인 주관하에 진행하되 교육청 파견 위원 1명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협상 테이블에 나선 사학법인협의회 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사학법인협의회 측은 그러면서 회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날 면접전형 교육청 파견인사 참여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학법인협의회측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학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단체기합 주듯이 공동채용을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1, 2차 전형 모두 시교육청 요청안을 수용했지만 최종 면접

에 시교육청 파견인사를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립교사와 달리 사학은 전보 조치라는 게 없어 한 번 채용하면 30년 가량 계속 함께 근무해야 한다. 미션스쿨을 비롯해 개별 사학마다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사학법인협의회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총회 결과를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도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하면 법인별 자체 선발에 따른 재정부담 및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드는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협의회와의 일괄협상과 별개로 오는 12일까지 개별 사학법인을 상대로 교원 위탁채용 참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4년간 시교육청이 추진한 교사 위탁 및 공동채용에는 13개 법인, 16개 학교(법인 및 학교 중복 가능)가 참여해 교사 34명을 채용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보영(맨 오른쪽) 전 대법관이 10일 오전 여수시법원에 법원 경호원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골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첫 출근길 '험난'

### 쌍용차 해고노동자 40여명 2014년 대법 판결 사과 촉구

'시골 판사'를 자칭해 국민의 관심을 모은 박보영 전 대법관이 첫 출근길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막혀 넘어졌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박 전 대법관의 과거 판결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10일 오전 9시 30분 관용차를 타고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경찰과 경호인력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사무실로 올라갔다.

취재진 20여명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의 첫 출근 소감을 듣기 위해 2시간정도 대기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호인력 등이 뒤엉키면서 박 전 대법관이 넘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40여명은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당시 41세)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

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전 대법관에게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등 노동자 대표 4명은 이날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관련 판결문을 들고 박 전 대법관을 면담을 요구했으나 박 전 대법관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여수시법원 앞에서 집회 또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법관은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에 대한 입장 대신 법원 직원을 통해 첫 출근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밝혔다. 그는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1년 순천에서 태어난 박 전 대법관은 전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월 2일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연구업무를 해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달뜨기 07:30  
해질 18:46    달짐 20:00

가을 내음 풀풀~  
당분간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다.

광주	구름많음	15/26	보성	구름많음	14/23
목포	구름많음	17/25	순천	구름많음	17/25
여수	구름많음	19/24	영광	구름많음	15/26
나주	구름많음	14/26	진도	구름많음	16/25
완도	구름많음	18/25	전주	구름많음	14/26
구례	구름많음	13/24	군산	구름많음	16/25
강진	구름많음	16/25	남원	구름많음	14/24
해남	구름많음	15/25	혁신도	구름많음	20/25
장성	구름많음	14/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	동~남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먼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중음: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22	03:13
	20:36	15:26
여수	03:48	10:06
	16:04	22:26

◇ 주간 날씨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	☁	☁	☀	☀	☀	☀
17/29	19/28	20/26	21/28	21/27	19/28	17/28

### 독버섯·독사·말벌... 가을철 야외활동 독성생물 주의보

가을을 맞아 독버섯과 말벌, 독사 등 독성생물 주의보가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일 "가을철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독성을 가진 야생생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독성생물의 종류와 대처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가을에는 야생 버섯이 번성하는데 이 중에는 독버섯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가을철 야외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말벌이 꼽힌다. 말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웅크리지 말고 뒷머리를 감싼 채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벗어나야 한다. 말벌은 보통 벌집 반경 20m 이내를 영역으로 삼기 때문이

다. 말벌의 공격성 실험에서는 노란색과 초록색에 대한 공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빨간색, 갈색, 검은색 순이었다. 화려한 색상보다 어두운 색상의 옷이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다. 독사에 조심해야 한다. 독사에 물린 사람이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 증가로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독사에 물리면 상처 부위를 헹글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3~4시간 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바르고 야외활동을 하면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릴 위험이 커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올 수능 응시생 2만350명...작년보다 119명 늘어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광주·전남 응시생은 모두 3만8079명으로 파악됐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 지원자는 2만350명으로 전년 대비 119명 증가했다. 재학생 응시자는 1만6624명으로 전년보다 218명 늘었으며 검정고시 출신자도 394명에서 40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졸업생 응시자는 3322명으로 전년보다 3431명에서 109명 줄었다. 전남 응시자는 모두 1만7729명으로 전년보다 11명 늘었다. 재학생이 75명 증가한 1만5648명, 졸업생은 45명 줄어든 1827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명 감소한 254명이었다. 전체 응시자는 59만4924명으로 지난해 59만3527명보다 1397명 늘었다. /김형호 기자 khh@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43주년 2018 제주관광의 해

## 제주 뱃길로 떠나는 가을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박 예약 문의는 해당 선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 목포, 우수영, 추자도 씨월고속훼리(주) 1577-3567	제주 ↔ 완도, 추자도, 여수 (주)한일고속 1688-2100	제주 ↔ 고흥(녹동) (주)한일고속 061-842-6111	제주 ↔ 부산 (주)동북아카페리 1661-9559

내담주최상 **항로별 가을제주** 총 2억원의 행운을 잡아라!!! 2018.9.1~9.30

항금빛 가을제주 이벤트 참여는 [www.tamnao.com](http://www.tamnao.com) 탐나오에서!

Download on the App Store | Google Play | 탐나오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